

##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29, 로마서 6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지난 두 세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두 개의 신약성경 본문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역사를 하고 있다거나 지금 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휘나 단어 분석, 단어 연구를 하고 있다, 아니면 문법을 보고 있다. 어떤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식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면서 작업하는 동안 여러분이 식별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두십시오.

제가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본문은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편지 중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는 문학적 맥락과 관련된 몇 가지 것들과 관련하여 이미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것을 서로 다른 해석 방식을 예시하는 텍스트로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이 본문은 짧고 1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으십시오. 그러나 내용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익숙해지기 위해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합니까? 결코 아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그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인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가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신 생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이니라. 그러면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제 우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왜 기록되었나요? 로마서 기록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책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우선, 로마서 본문 자체를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와 그것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특정 지리적 위치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다소 명확한 힌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5장과 25절, 로마서 15장에서 실제로 23장과 23절로 시작하는 몇 구절을 읽겠지만, 이제 이 지역에서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몇 년 동안 보고 싶었는데, 스페인에 가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나가는 동안 당신을 방문하고, 내가 그곳으로 가는 동안 그리고 잠시 동안 당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당신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기부하였음이라.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했고, 실제로 그들은 그들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가졌다면, 그들은 물질적인 축복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의무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의 이러한 지리적 참조에서 여러 가지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로마서 후반부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 도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섹션에서는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아가야 여러 교회에서 모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본문은 바울이 결국 서쪽으로 돌아가 로마를 방문하고 심지어 그 너머 스페인까지 계속 여행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이 방문하고 싶은 중요한 교회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비록 아직 방문하지 않은 것 같으나 지금은 아가야 지방에서 사역한 후에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으로 돌아갈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 더 서쪽(미안하지만)으로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더 서쪽으로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외의 정보에서 비롯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서기 49년에 이 시기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서기 49년에 로마 시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한 클라우디우스를 언급하는 역사적인 글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서기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귀환이 허용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서기 55~57 년경 에 로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증거를 토대로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추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로마서에는 하나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목적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궁극적으로 더 서쪽으로 가서 스페인을 방문할 길을 닦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는 로마를 자신의 향후 선교 활동을 위한 기반과 지원처로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즉 지속적인 복음 전파 선교 활동을 위한 기지로 로마를 확보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그러나 둘째, 이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려는 복음을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일어난 오해와 그의 반대자들, 특히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를 거점으로 삼으면서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시키기 위해 쓴 글인데, 아마도 글라우디오 치하의 유대인 추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돌아와서 교회가 주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통합하는 데 뒤따른 투쟁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연합시키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세 가지 목적이 로마서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쟁의 일부로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인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그것을 문맥에 넣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분명히 5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특히 바울이 처음 네 장에서 주장한 칭의의 결과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부분을 시작합니다. 장.

처음 네 장에서 그는 현재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되며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결과는 특히 5장부터 8장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옵니다(5장 1절부터 11절).

그것은 또한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6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7장에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소망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그들의 칭의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들은 칭의에서 오는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죄와 그들을 다스리는 죄의 권세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갖는 자유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5장 후반부, 12절부터 21절까지 두 가지 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인 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5장과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한 가능한 반대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율법을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6장 1절은 “만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면 은혜를 더욱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는 더 많아지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바울은 5장에서 말한 것에 기초하여 가능한 반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으로 알려진 것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즉, 가상의 상대를 소개함으로써 바울은 질문과 가능한 반대를 제기하는 이 가상의 상대와 일종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내용에 관해 많은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실에서 가르치는 전형적인 그리스-로마 기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것은 단지 교육 방법일 뿐이며, 교사가 자신의 가르침에서 자신의 주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가능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실제로 말한 것을 반드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자의 것일 수도 있고, 단지 저자의 가르침에서 자신의 주장을 수사적으로 발전시키는 저자 자신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학자들이 철학 학교와 그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는 비난으로 식별한 것으로 알려진 상당히 일반적인 형태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한 반대를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비판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제기하는 이러한 반대, 이러한 질문이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발전시키고 가능한 반대를 예상하는 바울 자신의 방식인지, 아니면 이러한 질문이 그의 반대자들이나 유대교도들이 제기한 실제 반대를 제기하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이 어떻게 바울의 논증을 진전시키고 6장을 5장과 연관시키는 역할을 하는지입니다. 따라서 6장이 5장과 관련되는 첫 번째 방식은 질문-답 형식입니다. 바울이 방금 말한 것에 대해 가설적이거나 가능한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관련되는 두 번째 방법은 제 생각에 6장에서 볼 수 있는데, 5장에서 발견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는 여전히 6장까지 계속됩니다. 즉, 5장에서 우리는 다음을 발견합니다. 아담과 아담이 인류를 죄와 죽음에 빠뜨리면서 행하고 성취한 일 사이의 대조,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불순종 행위와 대조되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행하신 일을 대조합니다. 이제 그의 순종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의와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인류의 두 머리로 묘사됩니다.

옛 인류의 아담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다스렸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의로 특징지어지고 다스려지는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인류, 각각의 머리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두 구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발견하는 내용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둘을 연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6장이 520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죄가 증가하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많아지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합니까? 이제 바울은 칭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피할 수 없는 도덕적 결과를 가져오며, 6장은 누구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장은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칭의와 소망이 도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장부터 11장 자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질문-답변 형식에 따라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장, 즉 6장 1절은 520년에 대한 잠재적인 오해나 520년에 바울의 주장에 대한 가능한 반대에 기초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전체 텍스트는 이러한 질문-답변 형식에 따라 작동됩니다. 1절의 질문과 2절부터 11절까지의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합니까?  
그것이 답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짓느냐' 입니다. 로마서 6장의 나머지 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 특히  
2장부터 11장까지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제 응답 자체는 적어도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2절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잘 알려져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역본을 탐색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옛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 응답은 일종의 전면적인 감탄사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은혜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질문에 대한 일종의 초기  
폭발입니다. 결코 아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의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이것이 왜  
터무니없는지 더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그 대답의 주요 부분이 2절 후반부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그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질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는 폭발입니다.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이제 더 많은 내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 가운데 사는 것 보다 모순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순,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응답 부분을 더 살펴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고, 그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 터무니없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3절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는 아직 살아있는 독자들에게 연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죽은 사람들에게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는 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죄에 대해 죽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1절의 반대를 반박하는 요약적 권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11절은 요약 명령으로 그것을 뒤집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줄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말했듯이, 2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은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더 가벼운 용어로 이해해야 한다면, 이는 단순히 우리가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바울은 죽음이라는 용어의 가장 강한 의미로 사용했고, 육체적 죽음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 보았듯이, 내가 말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가 여전히 이 부분인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장, 12장부터 21장까지에서 우리는 바울, 바울이 각각의 머리를 갖고 있는 두 시대, 두 시대, 두 인문학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 시대, 옛 시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아담을 머리로 하는 옛 인류,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창조되고 시작된 새 시대, 새 시대, 새 인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바울이 옛

시대로부터 벗어나고,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전환하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 치하의 낡은 시대와 늙음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아래 있던 옛 시대의 권세와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바울이 죄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입니다.

그는 죄라는 단어를 단수형으로 사용합니다. 그가 당신이 당신의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단수로 당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 이유는 바울이 죄를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력으로, 아담 시대와 노년의 일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악의 권세, 현 시대, 현 시대, 죄의 지배를 받는 아담 아래서의 권세에서 벗어나거나 죄의 지배와 지배와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 아래 현 시대의 통치와 통치,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죄의 통치와 지배를 끝내는 죽음을 경험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3장과 4절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시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죽음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죽은 누군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그 육체적 죽음, 시대를 끝내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옛 시대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옛 시대를 끝내고 사망의 통치와 통치를 끝내는 죽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옛 시대를 끝내는 예수의 죽음만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 시대를 여는 데 예수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 따르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죽음심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도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 아담의 머리 직분 아래 죄의 권세와 옛 시대에서 해방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이제 새 시대에도 참여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개시하신 새 시대는 우리가 5장, 12장, 21장에서 본 것처럼 생명과 의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것의 추가 연결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결합되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세례를 통해서라고 하더군요.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수단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과 연결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같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세례를 받거나 성령에 잠기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신약성서의 많은 학생들이 여기 로마서 6장의 세례에 대한 설명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다른 말과 모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1장부터 4장까지에서 그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수단으로 또 다른 사업인 세례를 도입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육체적인 물세례, 초기 교회의 의식, 즉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한 것으로 식별하기 위해 아직도 할 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세례를 은유적으로 사용하면 성령세례라던가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례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물세례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세례를 강조합니까? 아마도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바울이 구원의 경험과 과정을 모두 함께 묶인 여러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믿음과 회심, 성령의 은사와 물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의 통일된 경험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전체 개종 경험을 나타내는

일종의 말의 비유나 환유라고 불리는 언어의 사용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부분은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의 경험, 즉 세례의 육체적 의식이 회심의 전체 과정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즉 믿음과 회심의 전체 과정, 그리고 성령을 받는 과정, 즉 물침례는 단순히 그 전체 경험을 언급하는 수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 세례를 통해 믿음과 회심 등을 가정하고 물 세례를 통해 사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결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옛 시대, 옛 시대, 그리고 아담 아래서 죄와 죽음의 통치와 지배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특징으로 하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시작하시는 구원의 새 시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까지 지적한 점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죽으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죄 가운데 있던 옛 시대의 통치를 끝내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아담 시대의 시대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시대, 새

시대에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참여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계속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 내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무엇보다도 6절에서 종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존재의 일부, 죄에 대해 죽고 현 시대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죄를 단지 개별적인 죄의 행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것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죄가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힘이자 주인이 된 결과일 뿐입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해 죽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졌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이것이 바울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따라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죄의 지배와 폭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묘사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주목하십시오.

첫째, 그는 6절에서 옛 사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아마도 5장, 12장부터 21장까지의 관점에서 이 언어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옛 자아는 나의 어떤 존재론적 부분, 나의 존재, 나의 어떤 분리된 부분, 또는 내 마음의 어떤 특정 장소에 거주하는 어떤 충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란 아마도 아담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아담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아담의 지배를 받는 옛 시대의 일부로서, 우리가 통제되고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나의 전 존재,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나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죄로.

아담 안에 있던 옛 사람, 옛 시대에 죄의 지배를 받던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소되는 나의 옛 자아, 말소되는 나의 어떤 분리된 부분이 아니라, 옛 시대 아래, 아담 아래, 죄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나 더욱이 그가 죄의 몸에 대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주목하십시오. 이는 죄의 몸이 멸망되거나 없어질 수 있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의 몸은

나의 죄 많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나의 영적인 부분과 반대로 혐오감을 느끼는 육체에 뭔가 죄악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죄의 몸은 아마도 나의 옛 자아, 즉 아담 아래서 죄의 지배와 폭정 아래 있던 옛 시대의 일부인 나의 전체 자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멸망되고 없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강해서 바울은 내가 옛 시대에 아담 안에 있었고 죄의 지배를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멸망되었고 완전히 멸절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절은 바울이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할 때 그 배후에 있는 기본 원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주장 전체입니다.

죽음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전체 회심 경험을 대표하는 일종의 부분으로서 세례를 통해 결합된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바울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죄의 통치와 옛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면 9절과 10절은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2절의 언어를 일부 선택하는 방식으로 묘사되는지 주목하십시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신 바로 그 경험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은즉 다시 죽지 못하실 것이라.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6절과 같이 더 이상 죄가 없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니라. 2절을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나 그가 사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심이라. 그러므로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9절과 10절에 묘사된 방식은 그것이 묘사된 방식, 즉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 2절에 묘사된 방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계속 있다는 사실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폭정과 죄의 권세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담 시대와 현 시대, 죄의 지배와 폭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는 방식, 그들이 경험한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옛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되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히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 중 일부에 주목하세요.

예를 들어, 9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은즉 다시 죽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가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8절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 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고 말합니다. 미래 시제에 주목하세요.

문법적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 텍스트 토론의 해석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엄격한 미래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즉, 재림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재림 때에도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더 논리적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든 맥락상 둘 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그 부활의 궁극적인 경험과 죄의 폭정으로부터의 궁극적인 해방은 미래, 새 창조,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새 삶에서 걷고 사는 우리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1절의 질문에 표현된 관점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관점에 대하여 모순과 불일치가 있는 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시대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죽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에 참여하도록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낡은 시대에 우리의 존재를 끝내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사망이나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연합함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그는 여전히 예수의 역사적 죽음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으로서 낡은 시대와 우리에게 대한 그 지배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의 부활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새 생명의 시대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환난을 이겨나게 하십니다. 죄의 힘.

그러나 본문은 11절에서 끝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6.1절의 터무니없는 질문의 형태로 이 가설적인 반대를 취소하면서 이제 명령의 형태로 윤리적인 권고로 그것을 뒤집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방금 9절과 10절에서 말한 것에 기초하여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즉,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사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제 저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계시나니 이와 같이 바울이 이르되 너희도 너희 자신을

계수하라 죄에 대하여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과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줄로 여기라 10절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도 살아 계시니 그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과 같이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있는 줄로 여기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고려라는 단어는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그 경우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암시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며, 무엇인가 참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판단이나 고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고 허구가 아니라 현실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현실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의 이러한 고려나 판단은 현실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것이 된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의 부활.

내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명령으로 이것을 끝낸다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본문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다소 강력하고 제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는지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어찌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6절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압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언급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몸이 멸하려 함 이니라 하셨습니다. 언어는 아마도 그보다 더 강해서,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강력하고 자격이 없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의 몸은 파괴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폭정하는 힘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소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몸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부분을 명령이나 명령으로 끝맺습니까? 이것이 본문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몸이 멸하여졌고,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줄로 여기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라면 왜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명령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이미 참된 것과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사이에서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발견하는 긴장의 일부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식별하는 것.

마지막 때의 부활과 새창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의 부분적인 형태로만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충만함과 완전함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실인 것, 이미 시작되고 시작된 것,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사이의 긴장, 즉 긴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 긴장감이 바울의 언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의 몸은 파괴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함도, 최후의 부활도, 새 창조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명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긴장 사이, 이미 사실인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사이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고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신약성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다른 용어는 직설법과 명령법 사이의  
긴장입니다.

직설법은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이미 참된 것을 나타내는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표는 당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의미는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몸이 멸절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벗어났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1절 2절부터 10절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참되는 단순한 직설적 진술입니다. 그런 다음 명령은 11절에 나오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의 균형을 맞춥니다. 또한 지시적 근거나 명령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명령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직설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힘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의 몸은 파괴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현된 것과 아직 실현되어야 할 것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명령의 필요성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삶을 살아내라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명령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타당하고 필요하며 실행 가능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우리가 결합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실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12절을 보면 영어 번역이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어 번역에서는 6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절이 약간 다르게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NIV 원문인 NIV 원본은 11절에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합니다. 이는 11절을 1절부터 10절까지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11절이 다시 필수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현실을 토대로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참된 것을 적용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1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이는 이전에 말한 내용과 다시 연결하는 강력한 방법이며 종종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는 데 사용되므로 아마도 11절은 1부터 10까지의 결론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런데 11절, 즉 미안하지만 12절부터 6장의 끝까지는 12절, 11절의 명령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11절은 일종의 일반적인 필수.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라고  
생각하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겼나요? 그것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6장, 12장,  
12절과 그 장의 끝부분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12절은 그러므로 1절부터 10절까지, 또는 1절부터 11절까지, 특히  
11절을 기초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살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 하여 몸의 악한 욕망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다시 직설법에 기초하여 1절부터 10절까지의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사망에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그에게 드리라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은 너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1에서 11까지의 결론 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히 풀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보면서 제가 시도한  
것은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휘와 의미 측면에서 몇 가지 문법적  
설명을 살펴보고, 신학적 내용과 주제를 살펴보고,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궁극적인 맥락과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궁극적인 맥락을 연관지어  
살펴봅니다. 그 앞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뒤에 오는

것을 병합하고 준비하는지.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작업하면서 역사적 비평, 맥락, 단어 연구, 문법 분석, 신학적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식별하여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신약의 구약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5장의 그리스도와 아담의 비교에 기초한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6장,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져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본문을 멈추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본문, 즉 서로 다른 문학적 특징, 서로 다른 필요, 서로 다른 질문을 제기하는 매우 다른 본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해석 방법론의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고 그것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